

국가예산 확보 '총력'

강임준 군산시장, 기재부 방문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등 6개 사업 총 5521억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기획재정부의 2022년 예산안 2차 심의 대응을 위한 기재부 방문 활동을 이어갔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29일 기재부 안도걸 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한 데 이어, 3일 국가예산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중점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현 준설로 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란도의 투기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단산항 제2준설로 투기장 건설을 위한 예타 대상사업선정과 어



강조하였으며, 새만금개발로 회생을 감수해 온 전북의 수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과 군산상생형 일자리사업과 참여기업의 성공을 위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키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도 심사 통과와 국비 169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는 8월 말까지 마무리되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을 12월 2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에서 재배한 꼬꼬마양배추를 주원료로 한 꼬꼬마양배추김치가 이달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본 K-푸드' 합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꼬꼬마양배추김치 8월부터 100톤 수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에서 재배한 꼬꼬마양배추를 주원료로 한 꼬꼬마양배추김치가 이달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군산에서 재배를 시작한 꼬꼬마양배추는 해가죽화에 맞춰 작은 크기의 양배추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단기간에 해외수출과 국내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해 꼬꼬마양배추추출과 함께 이번에는 김치를 개발,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

꼬꼬마양배추김치 일본 수출은 유통업체인 (주)삼부자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시제품 생산과 식미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로 만들어 지난 1일 8.2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톤의 김치를 '타마코마치(미인양배추)'라는 브랜드로 일본에 수출하고 내년에는 300톤까지 수출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채형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의 효자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인 김치를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일본 외에 대만까지도 수출국가를 확대하고 관련 제품과 판매망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근로청년수당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익산시, 최종 대상자 750명 선정 8월부터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

익산시가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750명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5~6월 접수를 통해 총 851명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자격은 만 18세~39세 이하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지역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소상공인 사업장 포함) 1년 이상 근무, 지급 신청일 기준 1년간 월평균 급여가 세전 270만원 미만,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국제 및 지방체납 등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101명을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근로청년수당은 이달부터 매달 3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 주소지, 세금 완납 등의 조건을 유지하고 신청 당시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지급 중단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관내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지원 조건에 맞는 때에만 지원 재개 신고로 남은 기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 해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근로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청년센터 청송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 청년센터 청송(859-7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익산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 309개 강좌 운영

군산시는 오는 10월 3일까지 1,523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제2기 동네문화카페가 시내 일원 309개 학습장에서 운영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2기 동네문화카페는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0주간에 걸쳐 309개 강좌에 수강생 1,523명, 강사 303명, 매니저 55명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55명의 학습매니저가 학습장 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강좌(오키리나, 하모니카, 플루트, 색소폰 등)는 일시중단하고, 2~3명 분반 운영, 개강 시기

수강생 자율조정 등을 통해 감염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네문화카페 참여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대장 작성, 손소독 실시, 사회적거리두기,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는 물론 학습매니저를 통한 상시 관리와 담당부서 직원들의 수시 점검을 통해 동네문화카페의 방역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동네문화카페에 참여하는 309개 강좌 수강생, 강사, 사업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에 안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무의도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도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내과·한방 이동진료를 통해 도서지역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이동진료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서지역 중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 도서인 5개도서(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두리도)에 월 1회 내과·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도서주민 기초건강검진과 만성질환진료, 복약지도, 한의사의 침 치료 및 상담을 통해 도서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계절별 건강관리를 위해 온열질환, 곤충교상, 식중독 관련 상담 및 건강수칙 교육을 통해 여름철 발생 할



수 있는 질환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무의도서 순회진료 업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도 실시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모든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본인부담액 지원은 소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첫째아는 납부액의 50%, 둘째아 이상부터는 납부액의 70%가 지원된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원에서 1만 4000원까지 지원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군산 은파물빛다리 노후 상판 정비 '출입 통제'

군산시는 대표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내 물빛다리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상판 정비를 위해 전면적인 출입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은파물빛다리는 지난 2006년 개통된 이후 15년간 운영되는 동안 기존 상판 방부목의 노후로 인한 갈라짐, 패임, 임시 보수 조치에 따른 덜컹거림 현상 등 노후요철로 보행 불편과 안전감 저하 등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한 단단한 재질의 하드우드 천연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하부의 각관 구조 데크틀과 상부의 데크바닥재를 분리 시공과 난간 지주(기둥) 보강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유지관리 시 부분적인 데크바닥재 보수가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각 강관파일 및 철재 구조부와 교대 등 콘크리트면에 대한 도장보수공사를 동시에 시행해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